



삼국사기 보장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보장왕(寶藏王, ?~668)은 고구려의 제28대이자 마지막 왕으로 재위 기간은 642년~668년이다.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榮留王)을 시해하고 보장왕(寶藏王)을 세웠다. 따라서 당시 실권은 연개소문이 장악하였고, 그는 별다른 권위와 권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당과 신라와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으며, 결국 668년(보장왕 27년) 9월 고구려 멸망과 함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후 고구려 부흥을 기도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사후 당의 수도 장안(長安)에 묻혔다.

2 가계와 가족관계

고구려 제28대 왕으로 본명은 고보장(高寶藏)이다. 혹은 고장(高藏)이라 기록된 것도 있다. 그가 재위 중에 고구려가 망했기 때문에, 시호(諡號)와 같은 별도의 왕명이 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왕명으로 쓴다. 관련사료 아버지는 제25대 평원왕(平原王, 재위 559년~590년)의 아들 대양왕(大陽王) 혹은 태양왕(太陽王)이다. 제26대 영양왕(嬰陽王, 재위 590년~618년)과 제27대 영류왕(榮留王, 재위 618년~642년)이 그의 백부들이다.

왕비의 이름은 전하지 않으며, 아들로 647년(보장왕 6) 7월 당에 사신으로 간 고임무(高任武), 666년(보장왕 25) 당에 파견되어 태산(泰山) 봉선(封禪) 의식에 참석한 바 있는 태자 고복남(高福男), 고구려 멸망시 태자와 함께 당에 끌려간 것으로 기록된 고덕남(高德男), 699년 당 측천무후(則天武后)에 의해 안동도독(安東都督)에 임명된 고덕무(高德武),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당에서 운휘장군 우표도대장군 안동도호(雲麾將軍 右豹韜大將軍 安東都護)에 임명되었던 고련(高連) 등이 있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당시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후에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報德國王)에 책봉된 안승(安勝)도 보장왕의 서자(庶子)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의 아들로 보장왕의 외손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손자로는 686년 조선군왕(朝鮮郡王)에 봉해졌던 고보원(高寶元)과 고련(高連)의 아들로 안사(安史)의 난 후 당을 괴롭히던 북방의 이종족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움으로써 개부의동삼사 공부상서 금오위대장군 안동도호 담국공(開府儀同三司 工部尚書 金吾衛大將軍 安東都護 鄉國公)을 제수 받은 고진(高震)이 있었다. 관련사료

3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은 평원왕의 아들이자 영류왕의 동생인 대양왕의 아들로 원래는 왕위계승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642년(영류왕 25) 10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는 왕으로 세웠기에 그가 즉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국정을 주도할 실권이 없는 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고구려는 귀족연립정권을 구성하여 귀족들이 국정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